



병오년 새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국
립5.18민주묘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5
일 곧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선언,
조직, 실행으로 이어지는 빠른 전환은 행동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구호를 넘어 이제는 상상에 머무는 것이 아
니라 본격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
을 내디뎠다. 산업, 교통, 에너지, 인재 전략
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 성과로 증명하는
실행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복음·연합·선한 영향력” 광고협 2026신년하례회

1월 8일 오후 6시 광주광역시청 3층 대강당서 열려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석운 목사·이하 광고협)가 주최하는 2026 신년하례회가 1월 8일(목) 오후 6시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고협 서기 배정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제1부 예배에서 초교파장로회장 주남식 장로의 기도, 광주장로찬양단의 특별찬양(강하고 담대하라)에 이어 광고협 상임고문 문희성 목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을까?(요8:1~1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문희성 목사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이들이 양심에 찔려 자리를 떠

났다”며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영적 권위를 깨닫고, 정치보다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 새해에는 극한의 갈등과 대립의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용서와 사랑으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NCC회장 조규성 목사가 ‘나라와 민족,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광주기독교단체 연합회장 조우성 장로가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청을 위하여, 광주성서화운동본부 부회장 김원웅 목사가 ‘광주 교회들의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하고 광고협 고문 남택률 목사의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광고협 수석부회장 나종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신년하례회는 사무총장 여상수 목사의 내빈소개, 상임부회장 박상규 목사의 신년하례, 대표회장 정석운 목사의 신년사와 선불증정 및 축복기도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신년인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의 신년축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신년축사가 있었으며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 및 초청인사들의 인사가 뒤따랐다.

광고협이 새해를 맞아 준비한 신년특별케팅 순서에 이어 상임총무 이종필 목사의 광고, 직전회장 이종석 목사의 만찬기도로 2026신년하례회를 폐회하고 만찬 교제를 나눴다.



손성현 원로목사의 발인예식이 지난 12월 26일 오전 광주벚엘교회 대예배실에서 거행됐다.

광주벚엘교회 손성현 원로목사 소천

지난 12월 26일 발인, 전북 화신공원묘원 안장

고 손성현 원로목사(광주벚엘교회) 발인예식이 지난 12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광주벚엘교회 대예배실에서 거행됐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교회장

으로 치러진 장례예식은 리종빈 광주벚엘교회 위임목사가 집례했다. 이날 예식에서 이 교회 정대조 원로장로가 기도를, 리종빈 위임목사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승일 원로장로와 전남노회장 주문창 목사의 조사에 이어

유족대표 손희선 열린벚엘교회 담임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금호벚엘교회 서순석 목사의 축도로 예식을 마쳤다. 이날 고인의 운구는 고인과 함께 사역했던 광주벚엘교회 부목사 출신 목회자들이 담당했다. 고인은 1938년 11월 2일생으로 호남신학대학교와 장로회신



고 손성현 목사

‘재선 도전’ 강기정 광주시장 출판기념회

“광주의 희생, 역사 아닌 오늘의 삶과 도시의 변영으로”

1월 11일(일) 오후 1시~5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잠시 연기했던 출판기념회를 오는 1월 11일 열기로 했다.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이번 출판기념회는 광주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강 시장의 이번 출판회는 사실상 광주광역시장 재선 도전을 선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저서에서 강 시장은 “광주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정부를 세우는 데 기여했지만, 그 희생이 도시의 풍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이제 광주시민의 자부심은 역사 속 희생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도시의 변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에서 강 시장이 제시하는 미래 구상의 핵심은 ‘부강한 광주’다.

강 시장은 “‘부’는 산업과 일자리로 도시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힘이고, ‘강’은 시민 삶을 지탱하는 포용과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가 ‘부강한 광주’라는 의미다.

책에는 지난 3년간의 시장 성과도 담았다. 취임 후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G-패스 등 전국최초 복지 돌봄정책을 잇달아 도입하며 ‘돌봄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점을 강조했다. 산업분야에서의 국가인공지능(AD)데이터센터 개관,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AI기업 350여 곳과의 협력 구축, 더현대광주 등 복합소품물 추진, 군공항 이전 등의 성과도 실었다.



이를 바탕으로 강 시장은 민주의 뿌리 위에 AI로 완성하는 미래도시 광주, AX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기존산업에 AI를 결합하고 국가AI반도체(NPU)컴퓨팅센터와 AX실증밸리, 규제프리 실증도시,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AI모빌리티산도시 등을 구축해 광주를 ‘대한민국 AI 3강, 초격차 AI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는 지금 민주주의 DNA 위에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두 번째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열릴 성장의 기회를 붙잡아 ‘모두의 AI, 모두를 위한 미래도시 광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학대학교에서 수학하고 1969년 10월 전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80년 1월 8일 광주벚엘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래 2008년 9월 1일 원로목사로 추대될 때까지 28년여 동안 광주벚엘교회를 사임했으며 2008년 12월 성역 45년을 마감했고 2025년 12월 23일 주일 품에 안겼다.

고인은 1993년 전남노회 103회기 노회장, 1995년~2001년 광주기독교방위 이사장, 2002년~2007년 미션21 이사장을 역임했다.

피종진 목사 1월 국·내외 부흥성회

010-5255-7777
062-3377@gmail.com

1월 11일(일) 오후 1시~5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강기정 광주시장 출판기념회

“광주의 희생, 역사 아닌 오늘의 삶과 도시의 변영으로”

1월 11일(일) 오후 1시~5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시민이 설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통합, 지역의 미래를 여는 길”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석운 목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번 통합이 분절된 행정과 중복부자를 줄이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며, AI·반도체·에너지 전환 등 국가전략산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지역 청년과 취약한 이웃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통합은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기회를 위한 도덕적 요청이며 신앙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6.3지방선거 이전에 광주전남이 통합하여 미래 대도약의 기틀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통합의 정당성과 효과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힌다. 첫째, 통합특별법에 따른 권한·재정 특례는 승인과 집행 시간을 단축하여 전략적 결정을 신속하게 만든다. 둘째, 광주가 축적한 데이터·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농생명 기반이 결합될 때 남부 초광역의 산업·인재 생태계가 형성되어 지역 경제의 체질이 강화된다. 셋째, 부지·인허가·인력·주거·문화까지 단일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대형 투자를 유치할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 모든 이유는 통합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적 대안임을 보여 준다.

우리는 통합 추진이 성공하려면 법과 절차가 선명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통합 지자체 설치 특별법’에는 통합 방식과 권한·재정 특례, 과도가 거버넌스와 분정조정 장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시민 공론은 더 넓고 촘촘해야 한다. 권역별 설명회와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질의응답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운영하여 사실 기반의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 형평성은 통합의 신뢰를 좌우한다. 섬과 산간·도시 지역에 대한 교통·의료·교육 최소보장 버스캣과 취약계층 보호 장치가 특별법과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재정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초기 충격을 흡수하는 안

정화기금과 채무·인여 관리 등 중장기 재정준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감시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독립 시민감시단을 설치하여 분기별 이행점검과 성과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회는 기도와 참여로 공공선을 추구한다. 우리는 지역의 분열을 키우는 불신과 외곽을 경계하고, 사실에 근거한 토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각 교단과 교회는 청년·소상공인·농어민·장애인·도시지역 주민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공론장의 가교가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특례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언어로 제시해야 한다. 민원 처리기간의 실질적 단축, 광역 환승과 요금의 통합, 읍면의로건의 개선, 청년을 위한 주거·교통·문화 패스와 같은 구체적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실행되기를 요청한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롬 16:20) 우리 지역에 공의와 화평을 더하시어, 속도와 질차와 형평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통합이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더 나아지느냐’에 답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지역의 아이들과 어르신, 노동자와 소상공인, 농어민과 장애인, 그리고 취약한 이웃 누구도 뒤에 남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며 진실로 봉사하게 하시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 미래세대가 감사할 내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2026년 1월 8일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정석운 목사 (1,750 광주교회를 대표하여)